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 구스타프 융의 페르소나 특성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심 예 진

칼 구스타프 융의 페르소나 특성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

김 경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심 예 진

인 준 서

심예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인간은 삶의 목표에서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균형 있게 다루면 인격을 완성함과 동시에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고, 페르소나의 발현은 자신의 내면을 감추어 타인과 조화롭게 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페르소나는 현대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주요 요인으로, 융의 페르소나 특성을 활용한 패션, 건축, 회화작품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융의 페르소나 특성을 활용한 신체 예술 분야의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융의 페르소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바디페인팅에 활용하여,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타 장르와의 접목을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융의 페르소나와 바디페인팅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페르소나의 특성을 억제성, 위장성, 유희성, 다의성으로 도출하여 각 특성을 응용한 상반신 바디페인팅 3점, 전신 바디페인팅 2점으로 총 5점의 바디페인팅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은 페르소나의 특성 중 ‘억제성’이 나타나도록 ‘코르셋’ 이미지에서 몸을 압박하는 기능과 실루엣을 응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코르셋에서 신체를 죄이는 끈을 근육으로 단순화하여 재해석하였으며, 근육으로 인해 신체에 변형이 일어난 듯한 착시효과를 표현하고자 어두운 배경을 사용하고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II는 융의 페르소나 특성 중 ‘억제성’이 드러나도록 게르다 베게너의 작품인 ‘Lili with a feather fan’을 응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작품 속 자연물

을 곡선의 이미지로 추상화시켜 제작하였고, 파스텔계열의 색상으로 수채화 느낌을 나타냄으로써 남성의 내면에 억제된 여성성을 표현하고, 카무플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신체의 디자인과 배경이 자연스럽게 연결 되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III은 용의 페르소나 특성 중 ‘위장성’이 나타나도록 신디 셔먼의 작품 ‘Untitled #302’를 응용한 것으로, 성형으로 위장된 모습 속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얼굴엔 가면을 쓴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신체의 중심부에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트롱프뢰유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IV는 용의 페르소나 특성 중 ‘유회성’이 나타나도록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래피티작품 ‘Philistines’를 응용한 것으로, 작품 속 흑인의 인종차별을 표현한 낙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작품을 재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카무플라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바스키아의 작품과 디자인이 하나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V는 용의 페르소나 특성 중 ‘다의성’이 드러나도록 제임스 앙소르의 회화작품인 ‘가면 속의 자화상’을 응용한 것으로, 무수한 페르소나가 표현된 얼굴의 이미지를 선으로 표현하여 단순화하였으며, 트롱프뢰유 기법을 통해 전신에 수많은 표정이 보이도록 착시효과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용의 페르소나 특성이 바디페인팅과 접목되어, 철학적 개념과 예술의 융합으로써 다양하고 창조적인 디자인의 형태로 새롭게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바디페인팅의 장르와 영역이 더욱 다양화되고, 새로운 미적 가치로서의 발전과 더 많은 작가의 작품이 재해석 되어 바디페인팅 디자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II. 이론적 배경 | 3 |
| 1. 칼 구스타프 융 | 3 |
| 2. 페르소나 | 6 |
| 3. 바디페인팅 | 26 |
| III. 작품제작 | 35 |
| 1. 제작의도 및 디자인 계획 | 35 |
| 2. 작품제작 | 38 |
| IV. 결론 | 58 |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 | |
|-------------------------------------|----|
| <표 1> 선행 연구에 따른 페르소나의 특성 분류 | 11 |
| <표 2> 선행 연구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표현 유형 | 29 |
| <표 3> 페르소나의 특성에 따른 작품 디자인 계획 | 36 |
| <표 4> 작품 I의 디자인 이미지 | 40 |
| <표 5>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 | 44 |
| <표 6> 작품 III의 디자인 이미지 | 48 |
| <표 7>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 | 52 |
| <표 8>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 | 56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마음의 구조 | 5 |
| <그림 2> 자기실현-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 7 |
| <그림 3> corset | 15 |
| <그림 4> 2017 BALMAIN S/S | 15 |
| <그림 5> 신디셔먼, Untitled #250, 1992 | 15 |
| <그림 6> 게르다 베게너, Lili with a feather fan 1920 | 15 |
| <그림 7> 2018 F/W BLINDNESS | 18 |
| <그림 8> 신디셔먼, Untitled #302, 1994 | 18 |
| <그림 9> Frank O.Gehry, DZ Bank, 1999 | 18 |
| <그림 10> 파블로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 1907 | 18 |
| <그림 11> 2017 F/W ASHISH | 22 |
| <그림 12> 2018 F/W GUCCI | 22 |
| <그림 13> 데이비드 라샤펠 Xenophobia | 22 |
| <그림 14> 장미셸바스키아, Philistines, 1982 | 22 |
| <그림 15> 제임스 앙소르, 가면 속의 자화상, 1899 | 25 |
| <그림 16> 2003 S/S Raphael | 25 |
| <그림 17> 파블로 피카소, 우는 여인, 1937 | 25 |
| <그림 18> 나라 요시토모, The Girl with a Knife, 1995 | 25 |
| <그림 19> 바디페인팅 | 28 |
| <그림 20> 바디페인팅의 기원 | 28 |
| <그림 21> 자연 안료의 바디페인팅 | 28 |
| <그림 22> 퍼포먼스와 결합한 바디아트 | 28 |

| | |
|---------------------------------|----|
| <그림 23> 베르슈카, 카모플라주 바디페인팅 | 34 |
| <그림 24> 자연의 모방 | 34 |
| <그림 25> 착시 메이크업 | 34 |
| <그림 26> 엠마 해커, 신체의 배경화 | 34 |
| <그림 27> 작품 I | 41 |
| <그림 28> 작품 II | 45 |
| <그림 29> 작품 III | 49 |
| <그림 30> 작품 IV | 53 |
| <그림 31> 작품 V | 57 |

I. 서 론

현대사회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반하는 노동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¹⁾

이러한 감정 노동에 의한 스트레스 영향으로, 최근 “탈(脫) 코르셋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탈 코르셋 운동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얽매지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며, 몸매를 강요하는 사회의 시선을 지적하고, 일상과 노동환경에서의 몸매 압박, 외모 폼핑,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외모 차별의 합리화 등 외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 운동이다.²⁾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본래의 속마음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감추고, 연출하며 생활하였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이러한 현상을 집단이 개체에 요구하는 도리, 본분, 사회적 의무에 해당하는 행동규범 또는 역할로 인하여 그에 맞춰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뜻의 ‘페르소나(persona)’라고 하였으며,³⁾ 페르소나 현상이 익숙해지다 보면 인간은 진정한 자아를 상실하게 되며, 무의식이 배제된 의식적인 삶을 지향함으로써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한다.⁴⁾

1) 트렌드 지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441&cid=55570&categoryId=55570> (검색일자:2017. 12. 03)

2)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4251903512553574_1, (검색일자:2018. 04. 25)

3) 이부영(2008), 「그림자」, 한길사, p. 36.

반면에 적당한 페르소나의 발현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 시켜준다.⁵⁾

또한 페르소나는 오늘날 현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패션, 건축, 화화작품 등의 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바디페인팅과 같은 신체 예술 분야의 연구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을 바탕으로 페르소나 특성과 바디페인팅을 결합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바디페인팅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국내 단행본, 학위논문의 선행연구, 학술지, 인터넷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구스타프 융과 페르소나, 바디페인팅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페르소나의 특성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바디페인팅의 카모플라주기법과 트롱프리유기법을 접목하여 새로운 디자인 의도와 제작방법을 제시하여 상반신 바디페인팅과 전신 바디페인팅 총 5점의 바디페인팅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며, 미학적 가치를 지닌 융의 페르소나 특성을 바디페인팅 디자인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4) 윤중호(2018), “융의 분석심리학에 나타난 페르소나를 통한 작품연구: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

5) 권경용, 김규정(2010), “사진 예술에서의 페르소나적 표현 연구”, 예술과 미디어, 9(1), pp. 20-29.

Ⅱ. 이론적 배경

1. 칼 구스타프 융

1) 칼 구스타프 융의 생애

칼 구스타프 융은 1875년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시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⁶⁾

자신이 두 가지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은 융은 특이한 꿈과 환상을 체험하면서 점차 인간의 내면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⁷⁾ 정신병원 상담 목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정신의학을 활발하게 연구하였다.⁸⁾

1905년에는 취리히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 오스트리아 빈의 정신의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Freud, Sigmund: 1856-1938)를 만난다.⁹⁾ 융은 학계에서 끊이지 않는 비방을 받고 있던 프로이트의 이론을 지지했으며, 그를 위해 국제정신분석학회를 세워 의장으로 일했다.¹⁰⁾ 하지만, 프로이트의 권위의식과 성(性)적 욕구 이론에 대한 신앙적인 집념으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졌고, 결국 둘은 만난지 6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다.¹¹⁾

6) 이부영(2005), 「분석심리학 -C.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pp. 1-3.

7) 인물세계사, 칼 구스타프 융,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2698&cid=59014&categoryId=59014&mobile> (검색일자: 2017. 12. 02)

8) 두산백과, 칼 구스타프 융,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414&mobile&cid=40942&categoryId=40213> (검색일자: 2017. 12. 03)

9) 인물세계사, 칼 구스타프 융, 상계서.

10) 신근영(2012), 「칼 구스타프 융, 언제나 다시금 새로워지는 삶」, 북드라망, pp. 27-28.

11) 이부영(2005), 상계서, p. 16.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융은 독자적인 정신분석 체계를 발전시켜 “분석심리학”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도 포함하였으며, 많은 사회문제, 종교문제, 현대 예술의 여러 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¹²⁾

자신의 회고록에서 융은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스스로를 실현한 역사”라고 하였으며, 인간정신과 무의식의 창조성을 제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며 1961년 86세의 고령의 나이로 영면하였다.¹³⁾

2) 융의 분석심리학

분석심리학에서 융은 인간의 마음을 여러 층으로 나누었는데, 우선 의식에 해당하는 자아(나, 또는 에고)가 있고, 그 아래에 개인무의식(‘그림자’가 있는 곳)과 집단무의식(‘아니마’와 ‘아니무스,’ ‘원형’이 있는 곳)이 있으며, 마음의 맨 한가운데에 바로 ‘자기’가 있다고 하였다.¹⁴⁾(그림 1)

그 중 의식은 자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¹⁵⁾ 스스로 들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세계인 무의식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의식은 무의식의 모성적인 근원으로 태어나며,¹⁶⁾ 내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나의 생각, 내 이념과 내가 아는 세계 등 자아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 ‘나’는 이러한 의식의 가운데에 있지만, 의식은 정신의 구조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다. 의식을 작은 섬에 비유하자면, 무의식은 바다와 같다. 무의식은 내가 모르는 정신세계이며, 자아에 속하지 않는다.¹⁷⁾

12) 한은숙(2017), “분석심리학의 그림자와 도정신치료의 핵심감정 비교 연구: ‘자기실현’을 위한 두 가지 다른 방법”,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13) 상계서, p. 5.

14) 인물세계사, 칼 구스타프 융, 전계서 (검색일자: 2017. 1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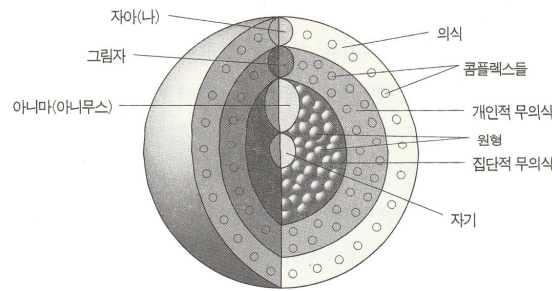
15) 강다연(2018), “융의 인격론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

16) Grundwerk C. G. JUNG저, 한국 융 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인간과 문화」, 숲, p. 217.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과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으로 세분화되며,¹⁸⁾ 개인적 무의식은 내면 깊숙이 있고 있던 상처나 도덕적으로 뒤틀린 감정(원한, 복수, 질투)이라고 볼 수 있다.¹⁹⁾

개인 무의식은 뭉쳐져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콤플렉스’라고 하며, 전체 인격에서 분리된 작은 인격과 같이 작용하고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²⁰⁾

집단적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에서 생겨나는 개인적 무의식과는 다르게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생겨난 모든 영적 유산이다. 또한 인간 정신의 본능적 힘의 원천이며, 그 정신이 본능들을 조절하는 행동의 유형들이나 범주의 원천이다²¹⁾.



<그림 1> 마음의 구조

(출처: 이부영(2008), 「그림자」, 한길사, p. 35.)

- 17) 이하경, 김희현(2014), *일러스트레이션포럼 융(C.G.Jung)의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상징의 표상적 특성 연구: 찰스 키핑의 '창 너머'를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38(-), pp. 35-46.*
- 18) 정혜경(2011), "화장품 광고의 메이크업·헤어스타일에 표현된 젠더 이미지 유형 연구: 융(Jung)의 아니마·아니무스 원형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0.
- 19) Grundwerk C. G. JUNG저, 한국 융 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인격과 진의」, 숲, pp. 28-29.
- 20) 김중선(2016),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7.
- 21) 박현(2014), "뉴 미디어 아트에 나타난 가변적 페르소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91.

2. 페르소나

1) 페르소나의 개념

페르소나(persona)는 사전적 의미로 외적 인격 혹은 가면을 쓴 인격²²⁾이라는 뜻으로, 본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다.²³⁾

성격, 인격(personality), 사람(person)이라는 용어를 파생시킨 페르소나는 자신의 본 모습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를 위한 성격을 의미하는데²⁴⁾ 그 의미는 정신분석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융의 인격이론에서 인간정신의 구조와 요소를 설명하며 사용한 개념인 페르소나는 개인의 인격과 행동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형 중 하나이며,²⁵⁾ 자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재자이다.²⁶⁾

<그림 2>와 같이 페르소나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으로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다.²⁷⁾ 자아의 인접해 있는 개인 무의식은 자아에 의해 인식되지 못한 경험들이 저장되는 곳으로 의식의 기능이나 개성화에 비판적인 정신활동과 내용을 저장하는 곳이다.²⁸⁾

이처럼 페르소나는 스스로를 외부세계의 이상적인 상(像)으로 만들기 위해 집단정신의 가면을 쓰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

22) DONG-A's Rime English-korean dictionary, 두산동아 역(2008), p. 1875.

23) 시사상식사전, 페르소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3508&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자: 2017. 12. 05.)

24) 한신영(2016), “페르소나(Persona)와 자아성찰에 대한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16.

25) 김종선(2016), 전계서, pp.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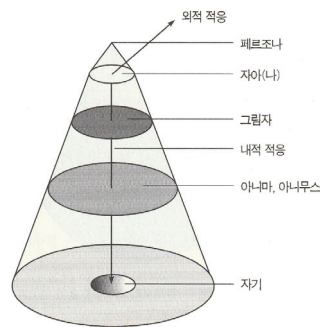
26) 정신분석용어사전, 페르소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5841&cid=48639&categoryId=48639> (검색일자: 2017. 12. 05.)

27) 영화사전, 페르소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0370&cid=42617&categoryId=42617> (검색일자: 2017. 12. 06.)

28) 김종선(2016), 상계서, p. 17.

이 개별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즉, 의식의 순수한 개인적 태도는 무의식으로부터 여러 반응을 일으키며 그 반응에는 개인적인 억압과 더불어 집단적 환상의 포장아래 개성 발전의 새싹들도 포함되어 있다.²⁹⁾

따라서 페르소나는 타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긴 모습으로 진정한 자기라고 할 수 없으며, 새로운 풍조에 따라 늘 변하고, 집단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행동 규범이자 사회적 역할이다.³⁰⁾



<그림 2> 자기실현-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출처: 이부영(2008), 「그림자」, 한길사, p. 40.)

3) 페르소나의 특성

융은 페르소나를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닌 외적 인격으로 정의 하였고³¹⁾, 인간은 천 개의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³²⁾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³⁾

29) Grundwerk C. G. JUNG저, 한국 융 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인격과 전의」, 전계서, pp. 56-57.

30) 김은이(2016), “융(C. G. Jung)의 인격론을 통한 도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0.

31) 박순환(2005), “다면 페르소나 검사를 통한 우울한 사람들의 성격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4), pp. 815-830.

32) 박현(2014), 전계서, p. 1.

33) 심다송(2016), “인간감정의 페르소나를 표현한 도자조형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또한 페르소나는 그 특성에 따라 심리적 측면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동 패턴, 용모 및 자세, 패션과 헤어스타일, 얼굴의 표정까지 영향을 끼치며, 인간의 여러 외적인 행동 패턴들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³⁴⁾

이러한 페르소나의 특성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긍정적인 요소로서 집단 구성원과 상호 관계를 성립할 수 있고, 개인의 심리구조와 사회적 요구 간의 타협점을 제시해주는 인터페이스(interface) 역할을 한다.³⁵⁾

용의 이론에서 페르소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한찬희(2007)³⁶⁾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페르소나 특성을 유연한 정체성과 위장된 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유연한 정체성은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과 다른 다원적 정체성을 구현하여 타인과 상호작용을 갖게 되며, 현실공간에서 자신을 억누르는 사회적 조건들로부터 해방되고 페르소나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일탈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위장된 정체성은 디지털 공간에서 실제적인 삶의 정체성을 감추고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며 과시하고 익명성으로 인한 성적 노출의 표현이나 언어폭력 같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이정명(2012)³⁷⁾은 페르소나를 크게 장식과 위장이라는 메이크업의 본질적 속성으로 나누었다. 페르소나와 자아에서 표면과 내면의 갈등 구조를 이중성과 다의성으로 분류하였고, 태생적인 연약함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달되어 사회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생긴 성인 페르소나에서 강한 존재, 초월적 존재, 억압된 이면의 투사와 표출을 과장성, 상징성, 공격성, 혐오성으로 분류

논문, p. 4.

34) 예민희, 임은혜(2015),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 마케팅”, *한국의류학회지*, 39(3), pp. 446-456.

35) 권경용, 김규정(2010), *전계서*.

36) 한찬희(2007), “디지털공간의 페르소나 형성에 관한 사례연구: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용자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4-39.

37) 이정명(2012), “아트메이크업과 페르소나 표현의 상관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1), pp. 361-371.

하였으며, 성인 사회에서 내재되고 억제된 어린이 페르소나에서 마술적 동심과 유희적 동심을 마술성과 타자성으로 분류하였다.

이지영(2013)³⁸⁾은 융의 분석심리학의 페르소나를 자기실현의 첫 단계라 하였으며, 의식의 자아가 외적 인격인 나를 인식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첫 번째 페르소나의 다양한 상징적 표현은 제임스 앙소르의 작품을 통해 본연의 자아를 감춘 채 가상의 인격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가면 이미지라고 하였다. 앤디 워홀의 ‘6개의 자화상’은 내면을 감춘 채 대중에게 인식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으로 목적과 의지에 의해 변형 가능한 페르소나의 특성인 복제된 자화상을 두 번째 상징적 표현이라 하였다. 또한 신디 셔먼은 무제스틸시리즈를 통해 사회 속에서 정형화된 여성의 이미지와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이미지들을 연출된 페르소나로 설명하였다.

박현(2014)³⁹⁾은 뉴미디어 아트에 나타난 페르소나의 가변적 특성을 고찰하고, 융의 이론에 따라 정립하였다. 예술작품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감성을 다의적 페르소나로 설명하였으며, 네트워크를 다면화된 페르소나로 언급하여 다면성으로 정하였고, 오감 확장을 통한 촉각성, 관객의 자발적인 몰입을 통한 유희성으로 구분하였다.

김종선(2016)⁴⁰⁾은 페르소나를 융이 정신의 구조를 설명하며 사용된 개념으로, 외부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외적 인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페르소나의 유형을 회피형, 연출형, 억제 분출형으로 분류하였고, 사회적 행동, 외모평가에 대한 압박, 패션을 통한 평가를 회피형으로 구분 지었다. 역할의 상징적 표현과 역할과의 분리, 자기표현의 조화로움 추구, 조직 적응, 이상적 이미지 표현, 부재이미지표현을 위한 이상적이미지 표현을 연출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집단 압박으로 인한 은폐, 선택에 의한 은폐, 억제된 이미

38) 이지영(2013), “분리된 자아 형상을 통한 정체성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20.

39) 박현(2014), 전게서, pp. 47-68.

40) 김종선(2016), 전게서, p. 89.

지 분출을 위한 패션을 억제 분출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 나타난 융의 페르소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페르소나에서 의식은 무의식으로부터 여러 반응을 일으키며 그 반응에는 개인 의식의 억압이 존재하는데,⁴¹⁾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페르소나 특성 중 회피, 억제와 분출, 공격성과 혐오, 연출된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통합하여 억압된 자아를 ‘억제성’으로 정리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역할과 습관, 규범에 동화되어 사회라는 연극을 위해 본래의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쓰는 페르소나⁴²⁾의 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키워드인 연출형, 과장과 상징성, 가면이미지, 유연한 정체성과 위장된 정체성, 반항적 특성, 가면성의 특징을 정리하여 ‘위장성’으로 도출하였다.

융은 무의식을 긍정적 삶의 원천이며, 창조성의 에너지 저장고라고 하였는데,⁴³⁾ 억제되어 있는 무의식적 욕망은 많은 예술가의 창의적인 페르소나로 나타난다. 이는 현실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흥미를 유발시킨다.⁴⁴⁾ 선행연구에서 유희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주술성, 마술성, 축각성, 유희성의 키워드를 도합 하여 ‘유희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인간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성격 이외에 다중의 성격을 연기할 수 있는 다양한 가면⁴⁵⁾ 즉, 페르소나를 적절히 사용하며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선행연구에서 타자성, 이중성과 다의성, 복제된 자화상, 교감성, 다면성으

41) Grundwerk C. G. JUNG저, 한국 융 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인격과 전의」, 전게서, pp. 56-57.

42) 김규림(2008), “창작춤 퍼레이드의 작품분석을 통한 페르소나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43) 김민정(2014), “영화를 통해 살펴본 그림자와 페르소나: 원만한(Vollständigkeit) 자아정체성을 위해”, 38(-), pp. 259-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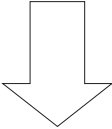
44) 박진희(2008), “패션쇼에 나타난 페르소나 아이템의 특성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74-77.

45) 추혜진(2014), “콘 사토시 작품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을 지닌 캐릭터의 페르소나 연구: 퍼펙트블루, 망상대리인,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5), pp. 181-208.

로 분류하였고, 이를 ‘다의성’으로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옴의 페르소나 특성을 <표 1>과 같이 억제성, 위장성, 유희성, 다의성으로 분류하고자한다.

<표 1> 선행 연구에 따른 페르소나의 특성 분류

| 선행연구 | 페르소나 특성 |
|---|---|
| 한찬희(2007) | 유연한 정체성, 위장된 정체성 |
| 이정명(2012) | 이중성과 다의성, 과장성과 상징성, 공격성과 혐오성, 마술성과 타자성 |
| 이지영(2013) | 가면이미지, 복제된 자화상, 연출된 페르소나 |
| 박현(2014) | 교감성, 다면성, 촉각성, 가면성, 유희성 |
| 김종선(2016) | 회피형, 연출형, 억제/분출형 |
|  | |
| 연구자 | 억제성, 위장성, 유희성, 다의성 |

(1) 억제성

억제는 의식적, 의지적이므로 무의식적 억압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의식적인 억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며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욕망(어떤 행동을 하고는 싶으나 했을 때 자신이나 타인에게 옳지 못한 경우)을 경험할 때 특히 잘 나타난다.⁴⁶⁾

페르소나에서 억압의 발생은 자신을 강한 존재로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자아를 압도하면서 무능감과 불안함, 우울감, 절망감, 수치심, 분노, 죄책감의 감정들이 무의식에 저장되면서 나타난다.⁴⁷⁾

이러한 억압의 발생은 여성과 남성 내면의 또 다른 성(性)의 억제에서도 보여진다. 융은 인간의 내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여성은 자신 내면의 남성성을 억압하고 남성은 자신 내면의 여성성을 억압한다.⁴⁸⁾

자유가 없었고 위축되어 있었던 과거의 여성들의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여성복은 <그림 3>과 같이 신체를 조이고 둘러 싸매며 늘어뜨리게 하여 활동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폭이 과대하게 넓거나 꼭 낀 스커트,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인 형태 등이 있다.⁴⁹⁾

의복에서 보여지는 억압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협과 절충의 과정을 거쳐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페르소나로서 주변 스타일에 맞추거나, 장소에 시간에 따라 스타일 연출을 보류하기도 하였으며, 규범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⁵⁰⁾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46) 두산백과, 억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9073&cid=40942&categoryId=31531> (검색일자: 2017. 12. 06.)

47) 이정명(2012), *전계서*.

48) 김규림(2008), *전계서*, p. 5.

49) 윤진아(2006), “코르셋 특의 표현적 특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및 패턴제작”,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pp. 159-170.

50) 김종선, 하지수(2012), “페르소나 발현 유형에 따른 패션스타일 연출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7(2), pp. 1-19.

패션 컬렉션에서 여성성을 돋보여주는 허리를 조인 형태의 의복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이와 같이 여성들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옷차림, 기대되는 행위 양식과 같은 사회적인 관습 뿐만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는 사회적 규범 때문에 각각의 성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태도 및 행위가 학습되어졌다.⁵¹⁾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억제된 자아는 경우에 따라 일탈이나 부적절하고 비정상적 양태로 분출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분출은 상상 속 괴물이나 응축된 에너지 덩어리로서 기괴한 페르소나를 탄생시키기도 한다.⁵²⁾

<그림 5>는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의 Untitled #250이라는 작품으로 여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신체의 기괴한 조합을 통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페르소나에 매어 있는 자신에게 벗어나 여성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의 획득을 위해 억압된 감정의 해방을 표현한 작품이다.⁵³⁾

융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남성과 여성의 외적 인격에 대응하여 각기 다른 내적 인격의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남성의 내적 인격을 아니마(Anima, Seele, 심혼), 여성의 내적 인격을 아니무스(Animus, Geist, 심령)라 하였다.⁵⁴⁾

영화 ‘데니쉬 걸’은 남성의 내적 인격인 여성성, 아니마의 억압이 잘 나타난 영화로, 덴마크의 여성화가 게르다 베게너(Gerda Wegener: 1886 - 1940)가 어느 날 남편인 에이나르 베게너(Einar Wegener, 1904년-1930)에게 여자 옷을 입혀 자신의 그림 모델의 대역이 될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때 에이나르는 “릴리 엘베”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인격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사건

51) 김지혜(2016),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52) 이정명(2012), *전계서*.

53) 전수경, 박윤미(2011), “신디셔먼의 셀프 포트레이트 작품에 나타난 무의식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8(-), pp. 143-154.

54) 김은이(2016), *전계서*, p. 41.

을 통해 에이나르는 타고난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적인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유해방을 실현하고자⁵⁵⁾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transgender) 화가가 된다.⁵⁶⁾

<그림 6>은 게르다의 ‘깃털 부채를 든 릴리’라는 작품으로 파스텔 톤의 색감과 꽃, 새, 깃털의 이미지를 곡선을 활용하여 여장한 남편 베게너의 억압된 여성성을 아름답게 표현하였으며, 이는 페르소나의 억제성 중 남성 속 여성성의 억압을 잘 나타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55) 적가(2012), “현대 패션에 나타난 키덜트적 유희성의 표현 방법 및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8.

56) 대중문화사전, 트랜스젠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15&cid=42028&categoryId=42028> (검색일자: 2017. 12. 10.)



<그림 3> corset

(출처:<https://www.pinterest.fr/pin/380906080964382402/?autologin=true>)

검색일자: 2017. 12. 08.



<그림 4> 2017 BALMAIN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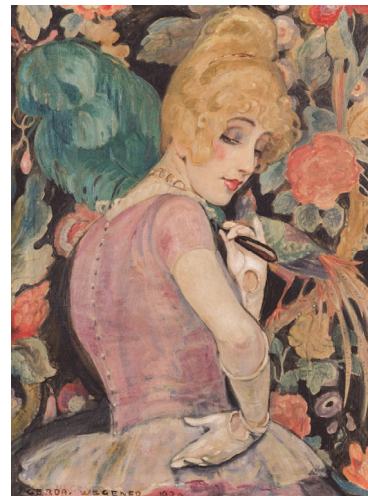
(출처: 「Vogue Korea Collection Book 2017 Spring/ Summer」, VOGUE KOREA, p. 30.)



<그림 5> 신디셔먼, Untitled #250, 1992

(출처:<http://toutelaculture.com/arts/expositions/les-jeux-de-la-poupee-de-l-innocence-au-fantasme/>)

검색일자: 2017. 12. 09.



<그림 6> 게르다 베게너, Lili with a feather fan 1920

(출처:<https://gkfus2974.blog.me/220682403915>)

검색일자: 2017. 12. 10.

(2) 위장성

본래 페르소나의 의미는 극 중 배우들이 얼굴을 가리며 쓰던 가면에서 유래되었듯이,⁵⁷⁾ 타자에게 보이는 성격이며 자기 변형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⁵⁸⁾ 위장의 뜻은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미거나 또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으로,⁵⁹⁾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다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⁶⁰⁾ 용이 말한 인간의 페르소나도 가면적인 위장의 역할로 그 맥을 같이 한다.⁶¹⁾

2018 F/W 블라인드니스(BLINDNESS)의 컬렉션은 눈을 감았을 때 상상되는 그림을 패션으로 표현한다는 뜻으로, 위장은 오늘날 현실, 예술, 패션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²⁾ 또한 <그림 7>과 같이 모델의 얼굴을 가린 디자인은 성별의 구별이 없는 ‘젠더리스’ 컨셉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위한 것으로⁶³⁾ 위장된 페르소나라고 설명 할 수 있다.

미국의 사진 예술가 신디 셔먼은 성형수술의 후유증을 상징하는 플라스틱 인조 가슴, 추한 화장과 의상 등으로 묘사되는 여성의 외적 이미지를 보여 주어 가슴속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감춰져 있는 여배우의 모습을 <그림 8>로 반영하였다.⁶⁴⁾ 마네킹의 얼굴은 바깥으로 드러난 위장된 인격을 나타내며 마네킹의 가슴 속에 있는 얼굴은 내면의 ‘또 다른 나’⁶⁵⁾를 뜻하는 페르

57) 시사상식사전, 페르소나, 전계서 (검색일자: 2017. 12. 10.)

58) 권경용, 김규정(2010), 전계서.

59) 국어사전, 위장,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9382600> (검색일자: 2017. 12. 11.)

60) 추혜진(2014), 전계서.

61) 박현(2014), 전계서, p. 61.

62) 한순자(2011), “복식의 사회적 가면성에 대한 연구”, 패션과니트, 9(1), pp. 1-12.

63)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dc7436dfa3324f03b7efbe8697eb6b28> (검색일자: 2018. 05. 02.)

64) 두산백과, 신디 셔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0853&cid=40942&categoryId=40514> (검색일자: 2017. 12. 12.)

65) 전수경, 박윤미(2011), “신디셔먼의 셀프 포트레이트 작품에 나타난 무의식에 관한 심리학적

소나의 위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프랭크 오 개리(Frank O.Gehry: 1929-)의 DZ Bank의 건축물에 나타난 페르소나는 외부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주변 상황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거나 공간의 존재를 외부세계에 나타내고자 하는 외부와 그와 대비 혹은 차이를 이루는 내부로 이루어진 공간이 페르소나의 위장 구성을 가진 공간 특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⁶⁶⁾(그림 9)

<그림 10>의 ‘아비뇰의 처녀들’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가 작품을 제작할 당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부족민들의 가면 이미지들에 많은 영감을 받아서 부족 예술을 현대적인 안목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⁶⁷⁾ 특히 작품에서 가면을 쓴 처녀를 통해 인간의 원초적 아름다움은 가식과 위선이 아닌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⁶⁸⁾ 페르소나의 위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찰: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8(-), pp. 143-154.

66) 김희용(2009), “분석심리학의 무의식적 특성에 의한 공간연구 : C. G. 융의 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3.

67) 신세정(2004),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를 통한 자아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6.

68) 김용우(2011), 「600장의 그림으로 읽는 서양미술사 미술의 이해Ⅱ」, 한맥, p. 225.



<그림 7> 2018 F/W BLINDNESS
 (출처:<http://runway.vogue.co.kr/2018/04/14/seoul-collection-2018-fw-blindness/#0:22>)
 검색일자: 2017. 12. 13.



<그림 8> 신디셔먼, Untitled #302, 1994
 (출처:<https://www.artsy.net/artwork/cindy-sherman-untitled-number-302-1>)
 검색일자: 2017. 12. 14.



<그림 9> Frank O.Gehry, DZ Bank, 1999
 출처:<http://jinsub0707.blog.me/140020369955>
 검색일자: 2017. 12. 15.



<그림 10> 파블로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1907
 (출처:김용우(2011), 「600장의 그림으로 읽는 서양미술사 미술의 이해Ⅱ」, 한맥, p. 225.)

(3) 유희성

유희는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동의 총칭이며, 오락, 유희 등과 함께 ‘우습다, 이상하다, 재미있다, 유쾌하다, 흥미 있다’ 등의 의미로⁶⁹⁾ 희극적 특성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페르소나에서 유희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익명성 뒤에 숨어 타자에게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즐기는 등 통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일탈을 꿈꿀 수 있으며,⁷⁰⁾ 현실에서의 탈출과 사회적 위계질서에서의 해방, 제외하는 반란을 해소해주는 일종의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⁷¹⁾

유희의 또 다른 기능으로 프랑스의 관념론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에 따르면 웃음은 굴욕감을 줌으로써 타인의 결함을 교정하기 위한 무언의 의도가 들어있으며, 웃음은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상대를 웃음의 대상으로 삼아 간접적으로 정신적 즐거움을 얻는 풍자라고 하였다.⁷²⁾

풍자는 현실의 불합리함과 위선, 부조리 등을 비판하는 태도로 조소함으로써 극적 효과에 의한 웃음을 유도하는 것으로 감성보다는 지성을 바탕으로 한다. 야유와 조소로 공격하며 나아가 대상의 부정성 개혁이라는 적극적인 목적까지 가지며,⁷³⁾ 이러한 것은 페르소나의 유희적인 표현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2017 F/W 아시시(Ashish) 컬렉션에서는 트럼프가 여성을 향해 내뿜은 막

69) 적가(2012), “현대 패션에 나타난 키덜트적 유희성의 표현 방법 및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8.

70) 추혜진(2014), *전계서*.

71) 박은성(2010), “가면이 무용의 표현성 확대에 끼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8.

72) 김종선, 전재훈, 하지수(2016),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난 유희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8(3), pp. 261-271.

73) 박진희(2008), *전계서*, p. 75.

말 '추잡한 여자(Nasty Woman)'가 쓰인 시퀀(sequin) 조끼를 내보였으며, 모델들의 얼굴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듯 레슬링 가면 메이크업을 한 채 당당히 걸어 나왔다. 이를 통해 아시시는 거침없는 행진을 보여줌으로써 성 소수자, 여성, 이민자 등에 대한 각종 차별을 반대하며,⁷⁴⁾ 패션을 통해 풍자하여 페르소나의 유희성을 나타내었다.(그림 11)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 1972-)는 성별·문화 등 다양한 범주의 경계를 깨뜨리는 사이보그를 미래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해석해 대상의 정체성을 일원적이고 타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색다른 사고방식을 <그림 12>와 같이 유희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 하여⁷⁵⁾ 페르소나의 유희성을 보여주었다.

독특한 극사실 미와 초현실주의에 심오한 사회적 메시지를 혼합하여 나타난 데이비드 라샤펠(David LaChapelle: 1963-)은⁷⁶⁾ <그림 13>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외국인 혐오증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상을 담아,⁷⁷⁾ 흑인의 얼굴에 백인의 몸을, 백인의 얼굴에 흑인의 몸을 붙여 표현함으로써 유희적으로 재해석한 페르소나 작품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팝아트 계열의 천재적 자유구상 화가인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1960-1988)는⁷⁸⁾ 인종차별, 사회비판 대한 목소리, 상업성, 대중문화의 기표를⁷⁹⁾ 자신의 작품으로 페르소나 했는데, 인종주의뿐만 아니라 흑인영웅과 관련된 작품 등을⁸⁰⁾ 상징, 기호, 자신만의 개성 있는 요소로 자유

74) 이지아 외 8인(2017), 「Vogue Korea Collection Book 2017 Fall / Winter」, VOGUE KOREA, p. 22.

75) 스페셜경제,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00> (검색일자: 2018. 02. 23.)

76) 데이비드라샤펠, <https://blog.naver.com/dmsgur9122/220971305344> (검색일자: 2017. 12. 15.)

77) 영어사전, Xenophobia,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05bf21e782854d9c88d033129e31dd8b> (검색일자: 2017. 12. 16.)

78) 두산백과, 장 미셸 바스키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939&mobile&cid=40942&categoryId=33488> (검색일자: 2017. 12. 18.)

79) 장희정(2007), “장-미셸 바스키아와 기표의 ‘사회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0.

롭게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표현과 상징적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의 도구로 사용하고,⁸¹⁾ 풍자를 반영하여 유머적인 화법을 통해 우울의 정서를 다소 완화시킴으로써 유희성을 통한 페르소나를 잘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4)

80) 장희정(2007), 전계서, p. 102.

81) 배세지, 강은주, 허미라(2015), “장 미셸바스키아의 작품을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48(-), pp. 327-336.



<그림 11> 2017 F/W ASHISH

(출처: 「Vogue Korea Collection Book 2017 F/W」, VOGUE KOREA, p. 22.)



<그림 12> 2018 F/W GUCCI

(출처:<http://runway.vogue.co.kr/2018/02/21/read-y-to-wear-2018-fw-gucci/#0:62>)

검색일자: 2018. 02. 23.



<그림 13> 데이비드 라샤펠 Xenophobia

(출처:<https://www.pinterest.co.kr/pin/384424518165379705/?lp=true>)

검색일자: 2017. 12. 17.



<그림 14> 장미셸바스키아, Philistines, 1982

(출처:<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741913&memberNo=37685217>)

검색일자: 2017. 12. 18.

(4) 다의성

사람들은 외부세계에 적응할 때 하나의 페르소나만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페르소나를 사용하는데, 한 개인에게 어떤 시점에 어떤 페르소나가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 달라지며, 그 특성에 따라 심리적 측면 뿐 아닌 사회적 행동, 습관적인 개인의 용모 및 자세, 의복, 표정, 머리 스타일 등까지 영향을 받는다.⁸²⁾

즉, 성격이 개인의 기질과 환경,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방식,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지듯 페르소나 또한 속해있는 환경, 개인의 특성, 상황, 역할에 따라 나타난다.⁸³⁾

다의성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하며, 애매성, 중의성, 모호성이라고도 하는데,⁸⁴⁾ 다수의 작품에서 페르소나의 다의성을 표현한 제임스 앙소르(James Ensor, 1860-1949)는 인간의 우매함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벨기에 화가로 오늘날의 표현주의의 직접적인 선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⁸⁵⁾

앙소르는 <그림 15>의 '가면 속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에서 군중 속에 고립된 자신을 보여준다. 가면으로 표현된 얼굴의 모티브는 기만적 세상에 대한 풍자인 동시에 자신의 무수한 자아이며, 내면의 동시적이고 복합적인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다의적 표현 양상은 페르소나라는 주제 자체와 직접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⁸⁶⁾

2003년 S/S 컬렉션에서 라파엘(Raphael)은 모델 얼굴에 확대된 아기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웠다. 흑백으로 코디네이션 된 드레스에 반복된 이미지를

82) 김종선, 하지수(2017), *전계서*.

83) 김종선(2016), *전계서*, p. 20.

84)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애매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9393&cid=47319&categoryId=47319> (검색일자: 2017. 12. 19.)

85) 미술대사전(인명편), 제임스 앙소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7559&cid=42636&categoryId=42636> (검색일자: 2017. 12. 20.)

86) 이정명(2012), *전계서*.

의상의 곳곳에 적용시킴으로서 페르소나 아이템을 통해⁸⁷⁾ 다의적인 페르소나의 전환을 나타냈다.(그림 16)

전쟁의 비극을 통한 여인들의 슬픔을 상징화한 피카소의 ‘우는 여인(Weeping Woman)’은 울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분해한 뒤 재조립하는 피카소 특유의 표현법으로 제작되었다.⁸⁸⁾(그림 17)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야만 숨겨진 진실이 나타난다고 생각한 피카소는 여인의 앞모습과 옆모습을 동시에 그려 넣어,⁸⁹⁾ 하나의 얼굴에 자신을 상실한 인간의 본질과 내면의 수많은 자아의 표출을 나타내며, 페르소나의 다의성을 보여 주었다.

요시모토 나라(Nara Yoshitomo: 1959-)는 ‘아이’와 ‘개’의 이미지를 ‘내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지칭하여 작품에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림 속 아이는 약간 치켜 올라간 눈, 넓은 이마와 벌어진 미간, 눈썹의 생략, 입가의 불길한 웃음, 머리를 크게 그리는 3등신의 신체비율, 간단하고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이다.⁹⁰⁾ <그림 18>에 나타난 ‘또 다른 나’는 여리고 순수하며 미숙한 소녀 같은 나라 자신의 모습과⁹¹⁾ 강한 불안과 두려움의 다양한 자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페르소나의 다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87) 박진희(2008), 전계서, p. 150.

88) 두산백과, 우는여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13761&cid=40942&categoryId=33054> (검색일자: 2017. 12. 21)

89) 이정은(2008), “비평적 감상학습을 통한 미술표현력 향상에 관한 연구 : 펠드맨(Feldman)의 비평 감상모형을 바탕으로 한 실제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5.

90) 최희빈(2012), “꽃과 공작 이미지를 통한 페르소나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91) 정신영(2014), “일본 현대미술에 나타난 서브컬처의 영향 : 무라카미 타카시, 아이다 마코토,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37.



<그림 15> 제임스 앙소트,
가면 속의 자화상, 1899

(출처:<http://blog.naver.com/joion/220926747521>)

검색일자: 2017. 12. 20.



<그림 16> 2003 S/S Raphael
(출처:Collezioni)



<그림 17> 파블로 피카소,
우는 여인, 1937

(출처:김용우(2011), 「600장의 그림으로 읽는
서양미술사 미술의 이해Ⅱ」, 한맥, p. 245.)



<그림 18> 나라 요시토모,
The Girl with a Knife, 1995

(출처:[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waba&logNo=100009415544&parentCategoryNo=&categoryNo=4&viewDate=&isShowPopularP](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waba&logNo=100009415544&parentCategoryNo=&categoryNo=4&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osts=false&from=postView)

검색일자: 2017. 12. 21.

2. 바디 페인팅

1) 바디 페인팅의 개념

바디아트(body art)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미술동향으로, 육체의 모습을 왜곡하고 계획된 패턴에 따라 면도날로 긁거나, 구토, 찌푸리기 등의 행위를 통해 신체를 변형시키는 등⁹²⁾ 인체 자체를 미술의 재료로 삼으며, 사진 등으로 기록하는 예술의 한 양식이다.⁹³⁾

이러한 바디아트의 하위개념인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은 <그림 19>와 같이 신체에 채색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⁹⁴⁾

원시 미술의 한 부분이었던 바디페인팅은 흙이나 광물의 점토, 식물에서 채취한 안료를 사용해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됐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의식을 통해 종족의 번영을 바라는 의미로 염료를 사용하거나 피부에 문양을 새기기도 했다.⁹⁵⁾(그림 20, 21)

바디페인팅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신에 비영구적으로 채색하는 행위 또는 채색된 인체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 현실세계와 미술의장을 통합하는 노력의 연장으로서 ‘사회조각’ 혹은 ‘살아있는 조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⁹⁶⁾

오늘날 바디페인팅은 신체를 종이 삼아 그림을 그리고 신체를 이용해 창작활동을 하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 잡았으며,⁹⁷⁾ 신체의 움직임을 응용

92) 세계미술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94639&cid=42642&categoryId=42642> (검색일자: 2017. 12. 22.)

93) 두산동아 역(2008), 「DONG-A's Rrime English-korean dictionary」, p. 294.

94) 권현정(2017),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95) 두산백과, 바디페인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7291&cid=40942&categoryId=33131> (검색일자: 2017. 12. 23.)

96) 최경옥, 이진희(2007), “디지털 아트로서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3(1), pp. 366-373.

하여 <그림 22>의 작품처럼 퍼포먼스와 결합해 아티스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가장 극대화하여 다채로운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⁹⁸⁾

이처럼 바디 페인팅은 의복의 기능성과 창작예술의 개념을 합한 새로운 표현 예술 양식이며,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⁹⁹⁾

97) 박주영(2011),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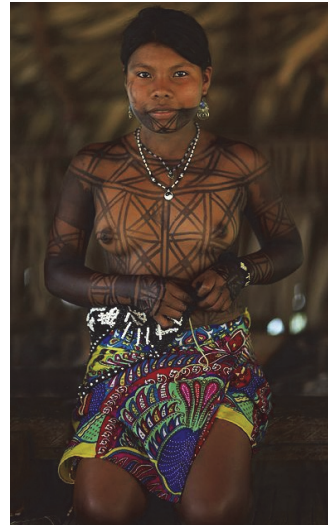
98) 김초롱(2017), “트라이벌무드 패션 경향 및 표현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

99) 박보영 외 4인(2002), 「Make up Art」, 동양서, p. 206.



<그림 19> 바디페인팅

(출처: Academy of Freelance Makeup 저,
정연자, 신세영 역, 2015, MAKEUP IS ART, p.
183.)



<그림 20> 바디페인팅의 기원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714172453380208980/?lp=true>)
검색일자: 2018. 01. 02.



<그림 21> 자연 안료의 바디페인팅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537054324306572874/>)
검색일자: 2018.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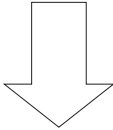
<그림 22> 퍼포먼스와 결합한 바디아트

(출처: <http://www.ilovebodyart.com/italian-body-painter-emanuela-peretto/>)
검색일자: 2018. 01. 05.

2) 바디페인팅의 표현유형

본 연구에서는 바디페인팅의 표현유형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그 표현유형을 카무플라주와 트롱프뢰유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선행 연구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표현유형

| 선행연구 | 표현유형 |
|--|--|
| 강민정(2006) ¹⁰⁰ | 자연물 이미지 표상, 시각적 착시 |
| 서귀예라, 오인영(2009) ¹⁰¹ | 일반적 기법, 눈속임 기법(Trompe-l'oeil), UV발광 기법 |
| 이진용(2011) ¹⁰² | 트롱프뢰유기법 |
| 안성준, 정재윤(2011) ¹⁰³ | 트롱프뢰유, 데페이즈망 |
| 이진용(2012) ¹⁰⁴ | 카무플라주아트, 트롱프뢰유아트 |
| 석필선(2012) ¹⁰⁵ | 트롱프뢰유기법 |
|  | |
| 연구자 | 카무플라주, 트롱프뢰유 |

100) 강민정(2006), “패션누드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2-28.

(1) 카무플라주

카무플라주(camouflage)는 프랑스어 camoufler(변장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로,¹⁰⁶⁾ 사전적 의미로는 명사 ‘동물의 보호색이나 형태 등의 위장’ 혹은 ‘전쟁에서의 위장’의 의미와 동사 ‘위장하다’라는 뜻이다.¹⁰⁷⁾

1차 세계대전 동안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된 카무플라주는 전쟁이 끝날 무렵에 구상적인(figurative), 민간의(nonmilitary)라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전쟁 후 카무플라주가 대중화되면서 그 의미가 사회적인 속임수 뿐 만 아니라 자연에서의 보호적인 은닉을 포함하고 밀리터리(military)의 맥락을 넘어 확장되기에 이르렀다.¹⁰⁸⁾

카무플라주 아트는 프랑스의 로랑 라 감바(Laurent La Gamba: 1967-)에 의해 ‘위장술 아트’로 행해져 주위환경과 동화 되는 예술을 의미하며, 카무플라주 아트 속 모델은 투명인간의 모습처럼 보여서 투명인간 아트로도 불린다. 바디페인팅에서 카무플라주는 표현의 한 수단으로 각종 매체나 카무플라주 아티스트들로 인해 대중화되었는데,¹⁰⁹⁾ 카무플라주 바디페인팅 예술가인 베르슈카(Veruschka: 1939-)는 실제 마스크와 몸을 이용하여서 자연의

101) 서귀예라, 오인영(2009), “Body Painting을 활용한 TV 광고 사례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0(4), pp. 173-189.

102) 이진용(2011), “착시현상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트롬프뢰유(Trompe-l'oeil)기법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2), pp. 177-188.

103) 안성준, 정재윤(2011), “광고에 나타난 트롬프뢰유(trompe-l'oeil)기법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3), pp. 285-295.

104) 이진용(2012), “카무플라주를 이용한 바디아트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3(2), pp. 189-200.

105) 석필선(2012)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 초현실주의 트롬프뢰유 기법에 의한 바디페인팅 작품제작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7-30.

106) 신영은(2013), 카무플라주 이미지를 이용한 인간의 과시성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107)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汎文社, p. 212.

108) 최경화(2013), “패션에 나타난 카무플라주 패턴의 시각적 표현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5), pp. 682-693.

109) 이진용(2012), *상계서*.

일부가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며, 유기체의 속성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바디페인팅을 하나의 예술적 영역으로 발전시켰다.¹¹⁰⁾(그림 23)

또 다른 카무플라주 바디페인팅 예술가인 리우 볼린(liu bolin: 1973-)은 과거 공산주의 색채가 짙었던 중국의 자유로운 표현의 억압을 문제 삼았고, 불합리한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자신의 신념이나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는 뜻에서 자신을 감추는 작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하여 예술로써 그 영역을 인정받고 있다.¹¹¹⁾

이처럼 카무플라주의 가장 일반적인 기법은 주변 환경과 동화되어서 숨는 것이며,¹¹²⁾ 사람·무기·장비·시설 등의 구별이나 움직임을 상대방으로부터 은폐하기 위해 나뭇잎·풀·이삭 등을 꽃거나 위장망을 씌워 자연 일부로 보이게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색을 불규칙하게 채색하는 방법으로,¹¹³⁾ <그림 24>와 같이 주요 경계선을 다른 형태 속으로 혼합시켜 그 형태를 감추거나 없애는 경우로 나타났다.¹¹⁴⁾ 이처럼 오늘날 카무플라주는 은닉의 의미로 예술, 장식 등에서의 표현경향이 다양화되고 있다.¹¹⁵⁾

(2) 트롱프뢰유

트롱프뢰유(trompe-l'oeil)는 프랑스어로 트롱프(tromper)의 '속이다'와 어일(oeil)의 '눈'을 합친 단어로, 그려진 대상을 보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나 사물로 착각하여 놀라게 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¹¹⁶⁾

110) 박주영(2011), 전계서, pp. 43-45.

111)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0929010006685> (검색일자: 2018. 01. 08.)

112) 황은진(2010), “카무플라주패턴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1.

113) 두산백과, 카무플라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562&cid=40942&categoryId=31738> (검색일자: 2018. 01. 11.)

114) 이유나(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51.

115) 최정화(2013), 전계서.

이는 실제의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된 ‘속임수 그림’이란 의미로 쓰이며,¹¹⁷⁾ 착각 기법 또는 착시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¹¹⁸⁾

착시란, 시각(視覺)에 관해서 생기는 착각으로,¹¹⁹⁾ 일상적인 시각의 경험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신비로운 시각경험을 느끼게 해주는데, 바디페인팅에서 트롱프뢰유는 형태의 왜곡과 눈속임으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며 논리와 상식을 뒤집고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재미와 재치로 흥미롭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¹²⁰⁾(그림 25)

바디페인팅에서 나타난 착시현상의 트롱프뢰유 기법은 신체의 배경화, 신체의 동물화, 신체의 사물화한 바디아트 작품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¹²¹⁾ 호주의 시각예술가 엠마 해커(Emma Hack, 1972-)의 작품은 신체를 배경화 한 바디페인팅으로 무늬가 있는 배경 벽에서 모델의 신체에 그림을 그려 결합하여 카멜레온 같은 위장 효과를 낸다.¹²²⁾(그림 26) 이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보이는 시각에 관해 생기는 착시 현상으로 트롱프뢰유의 특징을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트롱프뢰유의 표현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머릿속에 그려진 환영을 표현하는 그림을 말하며,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회화적 개념을 넘어 일상의 익숙한 사물이나 예측 가능한 일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¹²³⁾ 일종의 착시현상의 하나로서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116) 박경민(2012), “패키지디자인에서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지각 확장 표현방법 연구: 상황적 착시를 이용한 그래픽 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117) 두산백과, 트롱프뢰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834&cid=40942&categoryId=33050> (검색일자: 2018. 01. 10.)

118) 조유립(2009), “트롱프뢰유 기법의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119) 색채용어사전, 착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0644&cid=42641&categoryId=42641> (검색일자: 2018. 01. 11.)

120) 송영경(2008), “키덜트 패션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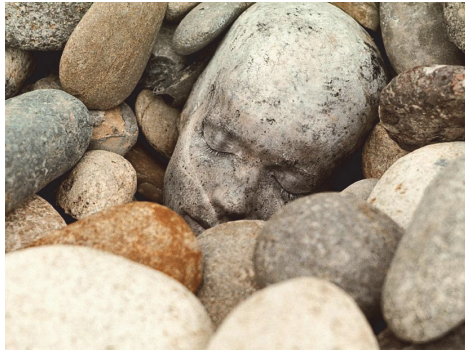
121) 이진용(2011), *전개서*.

122) 네이버 지식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Emma_Hack (검색일자: 2018. 01. 12.)

바디아트를 포함한 현대 예술에 표현되어져 왔으며, 여러 예술가에게 영향을 주었다.¹²⁴⁾

123) 조유림(2009), 전계서.

124) 안성준, 정재윤(2011), 전계서.



<그림 23> 베르슈카, 카모플라주 바디페인팅
 (출처:<http://highlike.org/text/holger-trulzsch/>)
 검색일자: 2018. 01. 01.



<그림 24> 자연의 모방
 (출처:<http://blog.naver.com/russha/60195637367>
)
 검색일자: 2018. 01. 02.



<그림 25> 착시 메이크업
 (출처:[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
 rtNo=65981](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65981))
 검색일자: 2018. 01. 09.



<그림 26> 엠마 해커, 신체의 배경화
 (출처:[https://www.emmahackgallery.com/produ
 cts/red-lips](https://www.emmahackgallery.com/products/red-lips))
 검색일자: 2018. 01. 10.

Ⅲ. 작품 제작

1. 제작의도 및 디자인 계획

페르소나는 현대 예술에서 무의식의 다양한 표출로써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재해석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며, 오늘날 많은 아티스트에게 영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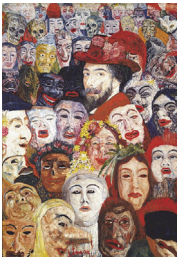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융의 페르소나의 특성을 억제성, 위장성, 유희성, 다의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패션, 사진, 그래피티 아트 (graffiti art), 회화 작품을 응용하여 바디페인팅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융의 페르소나 특성이 반영된 참고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패션의 '코르셋'과 게르다 베게너의 작품 'Lili with a feather fan'은 억제성, 신디셔먼의 사진 작품인 'Untitled #302'는 위장성, 장미셀바스키아의 그래피티 작품인 'Philistines'는 유희성, 제임스 앙소르의 회화 작품 '가면 속의 자화상'은 다의성이 표현된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작품 I, II는 억제성, 작품 III은 위장성, 작품 IV는 유희성, 작품 V는 다의성을 응용하여 상반신의 바디페인팅 3점과 전신 바디페인팅 2점, 총 5점의 바디페인팅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며, 융의 페르소나 특성이 나타난 이미지를 카무플라주와 트롱프뢰유 기법으로 응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페르소나의 특성에 따른 작품 디자인 계획

| 구분 | 페르소나의 특성 | 표현 범위 | 표현 유형 | 참고 이미지 | 디자인 스케치 | 디자인 채색 |
|--------|----------|-------|-------|---|--|---|
| 작품 I | 억제성 | 상반신 | 트롱프뢰유 |  |  |  |
| 작품 II | 위장성 | | 카무플라주 |  |  |  |
| 작품 III | 유회성 | | 트롱프뢰유 |  |  |  |

| | | | | | | |
|----------|-----|----|-------|--|---|--|
| 작품 IV | 다의성 | 전신 | 카무플라주 |  |  |  |
| 작품 V | | | 트롱프뢰유 |  |  |  |

2. 작품 제작

1) 작품 I

(1) 작품 설명

작품 I 의 <그림 27>은 용의 페르소나 특성 중 ‘억제성’이 드러나도록 사회의 규범과 역할로 인한 여성의 억압을 상징하는 코르셋의 이미지를 응용하였고, 여성의 몸을 죄이는 코르셋의 기능과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얼굴, 팔, 허리를 중심으로 재구성 하였다.

코르셋의 끈은 신체기관인 근육으로 표현하여 배와 허리, 얼굴, 팔을 조이는 도구로 나타내었고, 블랙색상의 배경과 대비되도록 화이트 색상과 레드 색상을 혼합하여 근육을 채색하여 착시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또한 서로 겹쳐진 근육 사이의 그림자를 블랙 색상을 사용하여 입체감 있고, 사실감 있게 제작 하였다.

색상은 전체적으로 그레이시 톤(grayish tone)을 사용하여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나타내었으며, 주조색은 화이트, 레드, 브라운, 블랙 색상을 사용하여 사회로부터 억압받는 억제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작품 I 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 방법

- ① 채색 전 얼굴, 허리, 팔을 포함한 상반신에 근육의 형태를 디자인 펜슬로 스케치 한다.
- ② 스케치한 근육에 그림자가 질 부분을 제외하고 화이트로 채색해 준다.

- ③ 오렌지, 레드, 브라운 색상을 혼합하여 근육을 묘사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해 준다.
- ④ 갈색 색도와 블랙색상을 사용하여 그림자 부분에 채색하고, 깊이감 있게 나타낸다.
- ⑤ 화이트 색상으로 근육의 튀어나온 부분을 더 밝혀 주어 하이라이트 시켜준다.
- ⑥ 얼굴, 배의 중심부, 팔의 조임을 표현하기 위해 블랙색상으로 채색하여 착시효과를 돋보이게 해준다.
- ⑦ 완성된 바디페인팅 작품을 블랙 배경에서 촬영하고 포토샵 작업을 통해 착시효과를 나타낸다.

작품 I 은 상반신에만 한정된 바디 페인팅의 형태로 아쿠아 물감과 아이 색도를 사용하였고, 착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트롱프뢰유 기법으로 표현 하였으며 디자인의 구성내용과 이미지는 <표 4>와 같다.

<표 4>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 | | | |
| 페르소나 특성 | 응용 이미지 | 디자인 스케치 과정 | | 표현유형 |
| 억제성 |  |  |  | 트롱프뢰유 |
| 컬러 | |  | | |



<그림 27> 작품 I

2) 작품 II

(1) 작품 설명

작품 II는 작품 I과 같이 옴의 페르소나 특성 중 ‘억제성’을 나타낸 것으로, 작품 I이 여성의 억압을 보여주었다면, 작품 II는 게르다 베게너의 ‘Lili with a feather fan’을 응용하여 남성 안의 억제된 여성성에 대해 표현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여성은 여장을 하고 있는 작가의 남편으로, 아내의 작품 모델 대역을 하게 되면서, 자신 안에 잠재 되어있던 여성성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페르소나의 억제성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8>은 얼굴에는 여성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음영 메이크업을 하여 나타냈고, 얼굴을 제외한 신체에는 페일 톤(pale tone)의 핑크, 블루, 퍼플, 오렌지 색상을 사용하여 수채화로 표현하였으며, 작품에서 보이는 꽃, 새, 깃털의 이미지를 곡선의 형태로 재해석하여 디자인 하여 남성 안의 억제된 여성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II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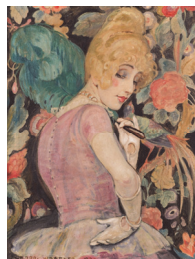



- ① 신체 바탕에 화이트 색상의 아쿠아 물감을 큰 브러시를 사용하여 깔아준다.
- ② 핑크색 아쿠아 물감을 물을 흠뻑 적신 브러시에 충분히 묻힌 후, 손가락으로 튀겨가며 신체를 향해서 뿌려준다.
- ③ 신체에 아쿠아 물감을 뿌린 후, 그 즉시 물이 담긴 스프레이로 분사하

여 물감이 번지는 수채화 느낌을 나타낸다.

- ④ 같은 방법으로 블루, 퍼플, 옐로우, 오렌지 색상을 순서대로 사용하여 수채화 느낌을 표현해 준다.
- ⑤ 물감이 다 마른 뒤, 옐로우 색상으로 꽃, 새, 깃털의 이미지를 스케치해 주고, 그 위에 다시 한 번 블랙 색상으로 라인을 선명하게 그려준다.
- ⑥ 모델의 얼굴 부위에는 남성성을 나타내기 위해 윤곽을 살린 메이크업을 해주며 마무리한다.
- ⑦ 완성된 작품에 포토샵 작업을 하여 페인팅의 디자인을 배경과 연결해 주어서 카무플라주의 위장 표현을 나타내었다.

작품 II는 상반신에만 한정된 바디 페인팅의 형태로 카무플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바디 페인팅과 배경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표현하였으며, 디자인의 구성내용과 이미지는 <표 5>와 같다.

<표 5>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 | | | |
| 페르소나 특성 | 응용 이미지 | 디자인 스케치 과정 | | 표현유형 |
| 억제성 |  |  |  | 카무플라주 |
| 컬러 | |  | | |



<그림 28> 작품 II

3) 작품 III

(1) 작품 설명

작품III은 용의 페르소나의 특성 중 ‘위장성’이 나타나도록, 신디 셔먼의 작품 ‘Untitled #302’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페르소나의 특성 중 위장성은 자신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익명성을 얻고, 자신의 진실 된 면모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신디 셔먼의 작품은 위장 뒤에 감춰진 ‘진정한 나’를 마네킹의 가슴속에 드러내며, 자아 확립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림 29>에서 신체 중심부는 아쿠아 물감의 블랙 색상으로 신체 중심부를 채색하여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묘사하였고, 그 안의 얼굴 이미지는 어두운 배경에서 돋보일 수 있도록 비비드 톤(vivid tone)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구멍 안의 얼굴을 입체감 있게 나타내었으며, 진정한 자아가 숨겨져 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자아의 모습을 분리된 눈, 코, 입, 귀로 나타내어 재해석 하였고, 얼굴에는 가면을 쓴 것처럼 표현하여 위장된 모습을 나타냈다.

작품 III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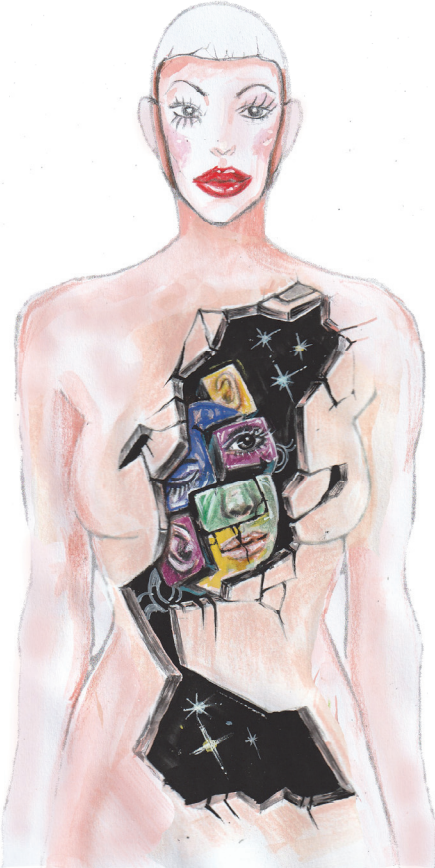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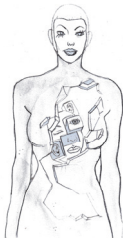

- ① 일러스트 시안과 같이 디자인 펜슬로 얼굴과 신체의 중심 부위에 조각난 구멍을 스케치 한다.
- ② 아쿠아 물감을 사용하여 스케치한 부위를 채색한다.
- ③ 조각난 디자인 부위에 중간 브러시를 사용하여 블랙 색상으로 그 안을

채색 한다.

- ④ 모델의 얼굴 부위도 가면을 쓴 것 같은 효과를 주어 채색한다.
- ⑤ 실버 색상을 사용하여 신체 구석구석에 조각상이 깨진 느낌을 표현한다.
- ⑥ 블랙색상의 아쿠아 물감으로 조각난 부위를 다시 한 번 강조해준다.

작품 Ⅲ은 상반신에만 한정된 바디 페인팅의 형태로 아쿠아 물감을 사용하였으며, 착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트롱프뢰유 기법으로 표현하였고, 디자인의 구성내용과 이미지는 <표 6>과 같다.

<표 6> 작품 Ⅲ의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 | | | |
| 페르소나 특성 | 응용 이미지 | 디자인 스케치 과정 | | 표현유형 |
| 위장성 |  |  |  | 트롱프뢰유 |
| 컬러 | |  | | |



<그림 29> 작품 III

4) 작품 IV

(1) 작품 설명

작품IV는 페르소나의 특성 중 '유희성'이 드러난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라피티 작품 'Philistines'에 표현된 점, 선, 면을 사용하여 재해석하였다.

페르소나의 유희성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자유롭게 풍자하여 작품을 통해 간접적인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작품IV는 흑인 차별과 인종주의에 대한 어두운 주제를 바디페인팅에 접목하여 유희적으로 나타냈다.

<그림 30>의 색상은 'Philistines'에서 사용된 레드, 옐로우,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고 비비드 톤(vivid tone)을 사용하여 생동감과 울동감을 부여하였으며, 블랙색상으로 신체의 골격을 바디 라인에 맞춰 표현하고 채색하였다. 모델의 얼굴 부분에도 흑인을 표현하기 위해 블랙색상으로 채색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카무플라주의 표현 방법을 응용하여 바스키아의 작품과 바디페인팅을 일체화 시켜 페르소나의 유희성을 표현하였으며, 작품 IV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 방법

- ① 모델의 전신에 디자인 시안을 바탕으로 펜슬로 밀그림 스케치를 한다.
- ② 스케치를 한 뒤 옐로, 레드, 블루색상 등으로 채색 한다.
- ③ 신체에 물감이 어느 정도 마른 뒤, 블랙색상의 아쿠아 물감으로 스케치한 라인을 따라 선명하게 그린다.

- ④ 블랙색상의 물감으로 신체의 상의 부분에 골격의 형태를 그려준다.
- ⑤ 화이트 색상의 물감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부위를 좀 더 묘사하여 표현한다.
- ⑥ 완성된 작품에 응용이미지와 바디페인팅을 결합하고, 포토샵 작업을 하여 카무플라주의 위장 표현을 나타내었다.

카무플라주 기법을 바탕으로 전신을 페인팅 한 작품 IV는 <표 7>로, 디자인의 구성내용과 이미지를 정리하였다.

<표 7>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 | | | |
| 페르소나 특성 | 응용 이미지 | 디자인 스케치 과정 | | 표현유형 |
| 위장성 |  |  |  | 카무플라주 |
| 컬러 | |  | | |



<그림 30> 작품 IV

4) 작품 V

(1) 작품 설명

작품 V의 <작품 31>은 페르소나의 특성 중 ‘다의성’을 드러내도록 제임스 앙소르의 작품 ‘가면 속의 자화상’을 응용 이미지로 하여 바디페인팅 작품을 제작하였다.

페르소나에서 다의성은 자라는 환경, 외부 환경,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개인의 자아를 말하는데, 앙소르의 작품에서 보이는 수많은 얼굴의 이미지는 참된 자아가 없고, 대중에 대한 공포감과 적대감의 표현으로, 강렬한 색채를 통해 조롱, 경멸, 위선 등의 감정을 얼굴 및 신체에 디자인하여 나타냈다.

또한, 다중인격을 표현하기 위해 눈, 코, 입과 함께 다양한 표정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덜 톤(dull tone)을 사용하고, 블랙색상으로 웃거나 찡그린 표정을 선으로 나타냈으며, 레드색상과 퍼플색상을 사용하여 입과 눈동자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다의적인 인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V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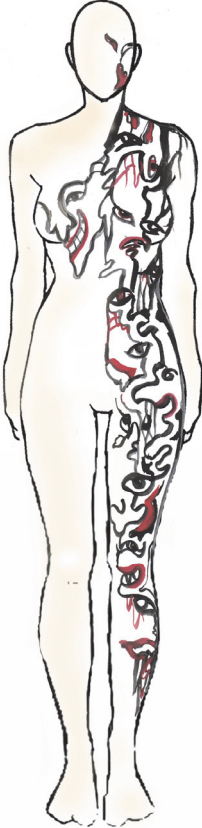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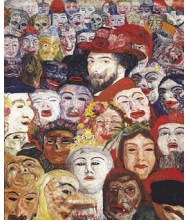



- ① 바탕이 되는 신체 부위에 큰 브러시를 사용하여 실버 색상의 수성물감으로 페인팅 한다.
- ② 물감이 마른 뒤에 화이트 펜슬을 사용하여 디자인 스케치를 한다.
- ③ 블랙 색상의 아쿠아 물감으로 디자인 스케치한 부분을 따라 다양한 굵

기로 선을 끊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그려준다.

- ④ 레드색상의 아쿠아 물감으로 입의 모양과 눈동자 주변을 그라데이션 하여 표현해준다.
- ⑤ 퍼플색상의 물감으로 포인트를 주어 그라데이션 해준다.
- ⑥ 전반적인 구도와 디자인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여 마무리 한다.

작품 V는 트롱프뢰유 기법을 전신에 표현한 바디페인팅 형식으로 디자인의 구성내용과 이미지는 <표 8>과 같다.

<표 8>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 | | | |
| 페르소나 특성 | 응용 이미지 | 디자인 스케치 과정 | | 표현유형 |
| 다의성 |  |  |  | 트롱프뢰유 |
| 컬러 | |  | | |



<그림 31> 작품 V

IV. 결 론

본 연구는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페르소나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페르소나의 특성이 나타난 예술작품, 패션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바디페인팅 제작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인 작품제작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은 페르소나를 본래의 자신을 감추고, 대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자아의 외부를 형성하는 사회적 인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간이 페르소나에 강하게 집착하게 되면 진정한 자아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심각한 정신 질병이 일어나지만, 페르소나와 자아가 적당히 균형을 이룬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

페르소나의 특성은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억제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역할에 동화되어 자신을 위장한다. 위장된 페르소나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페르소나의 사용은 익명성에 의한 재미와 많은 예술가의 창의적인 결과물이 된다. 이러한 페르소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하나의 페르소나가 아닌 수많은 페르소나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선행연구에서는 유연한 정체성, 위장된 정체성, 이중성과 다의성, 과장성과 상징성, 공격성과 혐오성, 마술성과 타자성, 가면 이미지, 복제된 자화상, 연출된 페르소나, 교감성, 다면성, 촉각성, 가면성, 유희성, 회피형, 연출형, 억제/분출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자아의 억압을 억제성, 본 모습의 위장을 위장성, 익명성에 의한 재미를 유희성, 다양한 페르소나의 발현을 다의성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둘째, 바디페인팅은 바디아트의 하위 개념으로 인간의 신체에 디자인하고 채색하며 더 나아가 신체를 왜곡하여 변형시키는 새로운 창작 예술 장르이다. 바디페인팅은 오늘날 다양한 표현 유형의 발전으로, 크게 위장의 특징을 갖는 카무플라주 기법과 착시의 특징을 갖는 트롱프뢰유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옹의 페르소나의 특성이 나타난 패션, 미술작품, 시각예술을 활용하여 바디 페인팅 작품 제작에 응용하였으며, 상반신 바디페인팅 3점, 전신 바디페인팅 2점, 총 5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페르소나의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I은 사회로부터 억압된 진정한 자신을 여성의 몸을 조이는 코르셋의 이미지에서 모티브를 얻고, 트롱프뢰유의 표현 방법을 활용해 자아의 억압성을 작품에 나타내었다.

작품 II는 게르다 베게너의 'Lili with a feather fan'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남성 안의 여성성의 '억압된 성(性)'을 카무플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바디페인팅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II은 사진작가 신디셔먼의 작품 중 'Untitled #302'를 모티브로 착안하여 인위적으로 꾸며진 연출된 걸모습과 다른 진정한 아름다움의 위장을 트롱프로유의 착시 기법으로 바디페인팅하였다.

작품 IV는 인종차별주의라는 무거운 소재를 그래피티로 재해석한 장 미셸 바스키아의 'Philistines'를 응용하고, 카무플라주 기법을 통해 바디 페인팅에 유희성을 나타냈다.

작품 V는 제임스 앙소르의 '가면 속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수많은 가면 이미지를 트롱프뢰유 기법으로 페르소나의 다의성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바디아트 디자인 표현에 있어서 옹의 페르소나는 바디페인팅이라는 신체 예술과 만나면서 새로운 흥미와 미적 쾌감을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대 바디페인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바디

페인팅의 창의적인 접근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용이 말한 개념으로만 국한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지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용의 페르소나로 한정 짓지 않고 페르소나와 관련된 개념과 특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작품 제작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민정(2014), “영화를 통해 살펴본 그림자와 페르소나: 원만한(Vollständigkei
t) 자아정체성을 위해”, 38(-), pp. 259-284.
- 전수경, 박윤미(2011), “신디셔먼의 셀프 포트레이트 작품에 나타난 무의식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한국과학
예술포럼, 8(-), pp. 143-154.
- 강다연(2018), “융의 인격론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민정(2006), “패션누드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곽주영(2011),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정(2017),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라이프스타일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림(2008), “창작춤 퍼레이드의 작품분석을 통한 페르소나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우(2011), 「600장의 그림으로 읽는 서양미술사 미술의 이해Ⅱ」, 한맥.
- 김은이(2016), “융(C. G. Jung)의 인격론을 통한 도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선(2016),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선, 전재훈, 하지수(2016),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난 유희성에 관한 연
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8(3), pp. 261-271.

- 김종선, 하지수(2012), “페르소나 발현 유형에 따른 패션스타일 연출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7(2), pp. 1-19.
- 김지혜(2016),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초롱(2017), “트라이벌무드 패션 경향 및 표현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타마라(2013), “현대미술에서 가면적 자아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용(2009), “분석심리학의 무의식적 특성에 의한 공간연구 : C. G. 융의 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두산동아 역(2008), 「DONG-A's Rime English-korean dictionary」, p. 1875.
- 두산동아 역(2008), 「DONG-A's Rime English-korean dictionary」, p. 294.
- 박경민(2012), “패키지디자인에서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지각 확장 표현방법 연구: 상황적 착시를 이용한 그래픽 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영, 이수경, 이진용(2002), 「Make up Art」, 동양서, p.206.
- 박순환(2005), “다면 페르소나 검사를 통한 우울한 사람들의 성격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4), pp. 815-830.
- 박은성(2010), “가면이 무용의 표현성 확대에 끼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2014), “뉴 미디어 아트에 나타난 가변적 페르소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귀예라, 오인영(2009), “Body Painting을 활용한 TV 광고 사례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0(4), pp. 173-189.
- 석필선(2012)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 초현실주의 트롱프뢰유 기법에 의한

- 바디페인팅 작품제작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영경(2008), “키덜트 패션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근영(2012), 「칼 구스타프 융, 언제나 다시금 새로워지는 삶」, 북드라망.
- 신세정(2004),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를 통한 자아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다송(2016), “인간감정의 페르소나를 표현한 도자조형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성준, 정재윤(2011), “광고에 나타난 트롱프뢰유(*trompe-L'oeil*)기법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3), pp. 285-295.
- 예민희, 임은혁(2015),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 마케팅”, *한국의류학회지*, 39(3), pp. 446-456.
- 윤진아(2006), “코르셋 특의 표현적 특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및 패턴제작”,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pp. 159-170.
- 이부영(2005), 「분석심리학 -C.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 이부영(2008), 「그림자」, 한길사.
- 이유나(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명(2012), “아트메이크업과 페르소나 표현의 상관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1), pp. 361-371.
- 이정은(2008), “비평적 감상학습을 통한 미술표현력 향상에 관한 연구 : 펠드만(Feldman)의 비평 감상모형을 바탕으로 한 실제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아, 손은영, 김미진, 김지영, 송보라, 손기호, 홍국화, 남현지(2017), 「Vog

ue Korea Collection Book 2017 Spring / Summer」, VOGUE KOREA.

이지아, 손은영, 김미진, 김지영, 송보라, 손기호, 홍국화, 남현지, 우주연(2017), 「Vogue Korea Collection Book 2017 Fall / Winter」, VOGUE KOREA.

이지영(2013), “분리된 자아 형상을 통한 정체성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진용(2011), “착시현상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트롬프뢰유(*Trompe-l'oeil*) 기법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2), pp. 177-188.

이진용(2012), “카무플라주를 이용한 바디아트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3(2), pp. 189-200.

이하경, 김희현(2014), *일러스트레이션포럼 융(C.G.Jung)의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상징의 표상적 특성 연구: 찰스 키핑의 ‘창 너머’를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38(-), pp. 35-46.

장희정(2007), “장-미셸 바스키아와 기표의 ‘사회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적가(2012), “현대 패션에 나타난 키덜트적 유희성의 표현 방법 및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수경, 박윤미(2011), “신디셔먼의 셀프 포트레이트 작품에 나타난 무의식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8(-), pp. 143-154.

정신영(2014), “일본 현대미술에 나타난 서브컬처의 영향 : 무라카미 타카시, 아이다 마코토,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경(2011), “화장품 광고의 메이크업·헤어스타일에 표현된 젠더 이미지 유형 연구: 융(Jung)의 아니마·아니무스 원형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유림(2009), “트롱프뢰유 기법의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 이건희(2007), “디지털 아트로서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3(1), pp. 366-373.
- 최희빈(2012), “꽃과 공작 이미지를 통한 페르소나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혜진(2014), “큰 사토시 작품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을 지닌 캐릭터의 페르소나 연구: 퍼펙트블루, 망상대리인,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만화 애니메이션연구*, -(35), pp. 181-208.
- 칼 구스타프 융 저, 「무엇이 개인을 이렇게 만드는가?」, 부글북스.
- 한순자(2011), “복식의 사회적 가면성에 대한 연구”, *패션과니트*, 9(1), pp. 1-12.
- 한신영(2016), “페르소나(Persona)와 자아성찰에 대한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숙(2017), “분석심리학의 그림자와 도정신치료의 핵심감정 비교 연구: ‘자기실현’을 위한 두 가지 다른 방법”,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찬희(2007), “디지털공간의 페르소나 형성에 관한 사례연구: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용자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은진(2010), “카무플라주패턴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汎文社.

- Grundwerk C. G. JUNG저, 한국 융 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인간과 문화」, 솔.
- Grundwerk C. G. JUNG저, 한국 융 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구글: 데이비드 라샤펠, Xenophobia, <https://www.pinterest.co.kr/pin/384424518165379705/?lp=true> (검색일자: 2017. 12. 17)
- 구글: 게르다 베게너, Lili with a feather fan 1920, <https://gkfus2974.blog.me/220682403915> (검색일자: 2017. 12. 07)
- 구글: 베르슈카, 카모플라주 바디페인팅, <http://highlike.org/text/holger-trulzsch/> (검색일자: 2018. 01. 01)
- 구글: 신디셔먼, Untitled #250, 1992, <http://toutelaculture.com/arts/expositions/les-jeux-de-la-poupee-de-l-innocence-au-fantasme/> (검색일자: 2017. 12. 09)
- 구글: 신디셔먼, Untitled #302, 1994, <https://www.artsy.net/artwork/cindy-sheerman-untitled-number-302-1> (검색일자: 2017. 12. 13)
- 구글: 엠마 패커, 신체의 배경화, <https://www.emmahackgalleries.com/products/red-lips> (검색일자: 2018. 01. 10.)
- 구글: 착시 메이크업,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65981>(검색일자: 2018. 01. 09.)
- 네이버: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애매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9393&cid=47319&categoryId=47319> (검색일자: 2017. 12. 19)
- 네이버: corset, <https://www.pinterest.fr/pin/380906080964382402/?autologin=true> (검색일자: 2017. 12. 08)
- 네이버: Frank O.Gehry, DZ Bank, 1999, <http://jinsub0707.blog.me/140020369955> (검색일자: 2017. 12. 15)

네이버: 국어사전, 위장,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9382600> (검색일자: 2017. 12. 11)

네이버: 나라 요시토모, The Girl with a Knife, 199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waba&logNo=100009415544&parentCategoryNo=&categoryNo=4&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검색일자: 2017. 12. 21)

네이버: 네이버 지식백과, Emma Hack, https://en.wikipedia.org/wiki/Emma_Hack (검색일자: 2018. 01. 12)

네이버: 네이버 지식백과, 게르다 베게너, https://ko.wikipedia.org/wiki/%EA%B2%8C%EB%A5%B4%EB%8B%A4_%EB%B2%A0%EA%B2%8C%EB%84%88 (검색일자: 2017. 12. 07)

네이버: 대중문화사전, 트랜스젠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15&cid=42028&categoryId=42028> (검색일자: 2017. 12. 07)

네이버: 데이비드라샤펠, <https://blog.naver.com/dmsgur9122/220971305344> (검색일자: 2017. 12. 15)

네이버: 두산백과, 바디페인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7291&cid=40942&categoryId=33131> (검색일자: 2017. 12. 23)

네이버: 두산백과, 신디 셔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0853&cid=40942&categoryId=40514> (검색일자: 2017. 12. 12)

네이버: 두산백과, 억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9073&cid=40942&categoryId=31531> (검색일자: 2017. 12. 06.)

네이버: 두산백과, 우는여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13761&cid=40942&categoryId=33054> (검색일자: 2017. 12. 21)

네이버: 두산백과, 장 미셸 바스키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939&mobile&cid=40942&categoryId=33488> (검색일자: 2017. 12. 1

8)

네이버: 두산백과, 카무플라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562&cid=40942&categoryId=31738> (검색일자: 2018. 01. 11)

네이버: 두산백과, 칼 구스타프 융,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414&mobile&cid=40942&categoryId=40213> (검색일자: 2017. 03. 24)

네이버: 두산백과, 트롱프뢰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834&cid=40942&categoryId=33050> (검색일자: 2018. 01. 10)

네이버: 미술대사전(인명편), 제임스 앙소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7559&cid=42636&categoryId=42636> (검색일자: 2017. 12. 20)

네이버: 색채용어사전, 착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0644&cid=42641&categoryId=42641> (검색일자: 2018. 01. 11)

네이버: 세계미술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94639&cid=42642&categoryId=42642> (검색일자: 2017. 12. 22.)

네이버: 스페셜경제뉴스,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00> (검색일자: 2018. 02. 23)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페르소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3508&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자: 2017. 12. 5)

네이버: 영어사전, Xenophobia,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05bf21e782854d9c88d033129e31dd8b> (검색일자: 2017. 12. 16)

네이버: 영화사전, 페르소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0370&cid=42617&categoryId=42617> (검색일자: 2017. 12. 06.)

네이버: 인물세계사, 칼 구스타프 융,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2698&cid=59014&categoryId=59014&mobile> (검색일자: 2017. 12. 02)

네이버: 자연의 모방, <http://blog.naver.com/russha/60195637367> (검색일자: 20

18. 01. 02.)

네이버: 장미셀바스키아, Philistines, 1982,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741913&memberNo=37685217> (검색일자: 2017. 12. 18)

네이버: 정신분석용어사전, 페르소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5841&cid=48639&categoryId=48639> (검색일자: 2017. 12. 05.)

네이버: 제임스 앙소르, 가면 속의 자화상, 1899, <http://blog.naver.com/joion/220926747521> (검색일자: 2017. 12. 20)

네이버: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dc7436dfa3324f03b7efbe8697eb6b28> (검색일자: 2018. 05. 02)

Vogue: 2018 F/W BLINDNESS, <http://runway.vogue.co.kr/2018/04/14/seoul-collection-2018-fw-blindness/#0:22> (검색일자: 2017. 12. 13)

Vogue: 2018 F/W GUCCI, <http://runway.vogue.co.kr/2018/02/21/ready-to-wear-2018-fw-gucci/#0:62> (검색일자: 2018. 02. 23)

ABSTRACT

Body Painting Works Using Karl Gustav Jung's Persona Characteristics

SHIM, YE JIN

Departmen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oday, humans live as society demands, covering up their personal views. According to psychologist Carl Gustaf Jung, the use of appropriate personas helps a smooth social life, but excessive use of personas can lead to a serious loss of me when social status is lost, it loses a real or a serious mental illness They said they could get laz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Jung's Persona concept and characteristics and to present new designs through the fusion of aesthetic values and concepts.

The methods of this study looked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Jung's persona and body painting, referring to the national literature, prior studies, academic journals, and internet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Persona characteristics are composed of the suppression of emotion, hypocrisy, pleasure, and multiple personalities, which are based on prior research.

Work I and II show the suppression. Work III uses the characteristics of

hypocrisy. Work IV uses the characteristics of pleasure. Work V includes 5 pieces of body painting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multiple personalities: 3 pieces of work for the upper body and 2 pieces for the whole body painting.

Through the theoretical examination of Jung's Persona, I was able to see how much pressure and stress modern people have and think about myself once more. Also, by us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Persona in body art called body painting, creative design was newly expressed.

In the future body painting research, we hope that the body painting work will be actively studied not only by the concept of the personality of Jung, but also by considering the definition of various personas.